



## 김현구가 보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A Recognition on the Ilbonseogi and Samguksagi by Kim Hyungu

---

|                    |   |
|--------------------|---|
| 저자<br>(Authors)    | 황순중<br>Hwang, Soon-Jong   |
| 출처<br>(Source)     | <a href="#">역사와융합 1(1)</a> , 2017.12, 83-119 (37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바른역사학술원</a>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625">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625</a> |
| APA Style          | 황순중 (2017). 김현구가 보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역사와융합, 1(1), 83-119.  |
| 이용정보<br>(Accessed) | 121.162.211.***<br>2018/02/09 16:29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융합』 제 1집(2017. 12)

## 김현구가 보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황 순 중(고대사연구가)

### 차 례

1. 서론
2. 가야 7국 평정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론은 허위다
3.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4. 백제에 의한 임나경영도 허위다
5. 백제와 일본의 관계
6. 결론

### 【국문초록】

김현구는 『일본서기』 진구왕후 49년(369)조에 기록된 임나 7국 평정을 사실로 인정하고 일관되게 이후의 임나경영에 관한 논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진구왕후가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진구 49년의 기록 자체가 부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평정의 주체인 여러 장군들 중에서 백제 장군 목라근자만 그 실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또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와 동일시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며 『일본서기』의 임나는 모든 면에서 『삼국사기』에 보인 한반도의 가야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임나와 인근하여 기록된 신라 · 백제 · 고구려도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열

도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었다. 임나는 가야와 비교할 때 그 기록된 위치, 건국 및 멸망시기, 속한 나라들 및 왕의 이름, 주변국과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가야와 다르므로 한반도에 있던 나라로 볼 수 없다.

김현구는 2백 년의 임나경영이 야마토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제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 역시 전연 불합리하다. 백제의 목씨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다는 내용이 『일본서기』를 해석할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한반도에 없던 임나를 백제가 다스렸다는 가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일체 그 근거가 없는 허구일 뿐이다.

(주제어) 임나와 가야, 임나일본부, 목씨의 임나경영, 야마토 정권, (왜 · 백제 간) 왕실외교

## 1. 서론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는 『야마토(大和) 정권의 대외관계』(1985), 『임나일본부의 실체』(1987), 『임나일본부 연구』(1993), 『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2009),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2010) 등의 저술을 통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와 ‘임나일본부’에 대해 논해 왔다. 김현구의 논지는 ‘임나’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같은 나라인데, 이 임나를 백제가 평정하여 서기 4~6세기에 2백 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메이지시대 이후 지난 150년 동안 역시 임나를 가야로 보았는데, 한반도 남부의 이 임나를 야마토 왜 정권이 평정하여 다스렸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구는 임나를 ‘야마토 왜’가 다스렸다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대신 ‘백제’가 다스렸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인 사학자들의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한 것 같지만 그 내부 논리로 들어가보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 더 심각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김현구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나 7국을 평정했다는 『일본서기』 진구(神功)왕후 49년(369)의 기사는 일본에서도 허구로 인정되고 있다. 진구왕후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진구왕후 때까지의 기록은 믿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가공의 인물에 의한 임나정벌 역시 가공의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진구왕후 때의 일을 토대로 임나 7국 성립을 논한다.

둘째, 임나라는 나라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 기록에 나오는 가야와는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허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현구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처럼 임나와 가야가 같은 나라라는 전제하에 모든 논리를 전개한다. 허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다.

셋째, 김현구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관계 기사에서 야마토 왜가 주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백제가 주체였던 것처럼 바꿨으나, 거의 모든 내용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허위에 불과하다. 『일본서기』만을 토대로 임나문제를 논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내용들을 허위로 해석한다는 것은 양심적인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 2. 가야 7국 평정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허위다

『일본서기』에는 주아이(仲哀)왕 9년(320), 진구왕후가 바다를 건너 신라를 정벌하니 신라왕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맹세했다고 한다. 이에 고구려와 백제의 왕도 스스로 진구왕후의 영외에 와서 야마토 왜의 서번(西藩)으로 칭하며 조공을 약속하니,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을 야마토 왜의 직할령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49년 뒤(369) 진구왕후가 장군들에게 명해 신라를 격

파한 후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임나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김현구는 위 기록의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을 당연히 한반도의 삼국으로 보고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임나와 가야는 이름부터 다른데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두 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일본서기』는 이 임나 7국을 비자벌·남가라·녹국·안라·다라·탁순·가라라고 명시한 데 비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가야 6국을 금관가야·대가야·고령가야·아라가야·성산가야·소가야라고 명시해서 나라수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은 『일본서기』의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이 임나와 인근한 것으로 나타나는 신라·백제·고구려도 일본열도에 있던 삼국의 분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임나와 가야가 다른 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이 임나를 포함한 4국이 한반도의 4국과는 별개이므로, 한반도의 임나를 백제가 평정하여 경영했다는 김현구의 설이나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남선(南鮮)경영론은 애초부터 성립의 여지가 없는 허구이며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임나는 학문적으로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김현구가 허위의 임나일본부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다른 여러 측면에서 위 『일본서기』 기사들의 허구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진구왕후가 320년 신라·고구려·백제를 정벌했다는 이른바 3한 직할령에 관한 기록은 김현구의 표현대로 “진구왕후의 3한 정벌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sup>2)</sup> 『삼국사기』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일체 없는 사실

1) 일본열도 내의 분국설을 주장한 학자로는 김석형,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63;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문정창, 『고대일본사: 한국사의 연장』, 인간사, 1989; 김인배·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고대사』, 고려원, 1995;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등이 있다.

2)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41쪽

에서도 이는 분명해진다. 더구나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게도 삼국을 속국으로 삼았다는 것이니 일제 패전 후에는 일본인 사학자들까지도 차마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왕후측의 출병규모나 함선의 수, 장군의 이름, 신라와의 구체적 전투장면 하나 없이 삼국의 대왕들이 무릎을 꿇었다니 이것을 어찌 사실의 기술로 볼 수 있겠는가?

둘째, 진구왕후가 369년 신라를 격파하고 임나를 평정했다는 기록도 허황되고 모순되기는 마찬가지다. 49년 전에 이미 신라를 신속시켰는데 왜 또 신라를 쳐야했을까? 49년 전에 일본이 한반도의 삼국을 신속시킬 만큼 막강했는데 당시에는 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임나(가야)는 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때 와서 새삼 임나를 평정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했다는 것인지 정치적이나 군사적 이유에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일본서기』에 이 때 출정한 장군들 여러 명의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 경과에 대해서는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비자벌 · 남가라 · 녹국 · 안라 · 다라 · 탁순 · 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고 한 것이 기록의 전부이다. 다른 나라와의 중요한 전쟁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사실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는가?

셋째, 『일본서기』의 신라와 임나 정벌이 한반도에 관한 것이라면 『일본서기』는 물론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320년이나 369년에 왜와 관련된 기록이 일체 없다. 그러므로 진구왕후의 3한 정벌이나 임나평정은 다른 사료적 근거가 없는 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 「신라본기」를 보면 왜와 관련된 기사로 312년( 흘해이사금 3년) “왜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인을 청하므로 왕은 아찬 급리의 딸을 보내 혼인시켰다.”고 했으며, 344년(흘해이사금 35년)에는 “왜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혼인을 청하였으나, 신라에서는 먼저 여자를 출가시킨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록했다. 「신라본기」의 기록은 특별히 조작한 기사로는 보이지 않는데, 『일본서기』와 비교해 보면 양국 간에 혼인관계를 맺은 후 8년 만에 진

구왕후가 신라를 정벌한 것이 되어 부자연스럽다. 또 진구왕후가 신라를 신속시켰다면 그후 24년에 신라가 왜의 혼인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본기』에는 혼인을 거절한 다음 해(345)에 “왜국왕에게 글을 보내 국교를 단절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왜병이 쳐들어 와 금성을 포위하였으나 이를 물리쳤다. 이후 364년(내물이사금 9년)에도 왜적이 크게 쳐들어 왔으나 대패하여 거의 다 죽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5년 후인 369년에 왜가 신라를 격파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앞선 두 번의 침입시에 패한 왜군의 전투력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의 관계는 양쪽의 기록을 면밀히 비교하여 고찰해야 함이 상식인데도 김현구나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서기』의 기사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논리를 전개하니 올바른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369년의 『일본서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벽중·포미지·반고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왕 부자와 아라타와게·목라근자 등이 함께 의류촌에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후한 예로써 맞이하였다. 오직 지쿠마 나가히코와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에 올라 회맹하였다. 다시 고사산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말했다. ‘만약 풀을 갈아서 자리를 만든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로 자리를 만든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로써 지금 이후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라 칭하고 봄 가을로 조공하겠다.’ 곧 지쿠마 나가히코를 데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하게 예를 더하고 구저 등을 함께 보냈다.<sup>3)</sup>

3) 『일본서기』 진구왕후 49년 3월 조.

일본군이 침미다레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니 백제왕 초고(근초고 대왕)와 왕자 귀수(태자 근구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서로 만났으며, 지쿠마 나가히코는 초고왕과 두 번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 초고왕이 왜의 신하(제후)로서 왜에 영원히 조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일언반구도 기록된 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초고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이라면 이는 조작된 기사다. 조작이 아니라면 『일본서기』의 이 기록은 일본열도 내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백제왕이나 태자의 이름을 한반도 백제의 왕이나 태자의 이름으로 쓴 것은 열도에서의 일을 한반도의 일로 조작하기 위한 『일본서기』 편자들의 붓장난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현구는 이러한 『일본서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단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때의 주체를 야마토 왜가 아니라 백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

우선 근초고대왕은 일본 식민사학자들도 인정한 백제의 중흥군주로서 이후 태자 근구수대왕 때까지 백제가 위세를 떨치던 전성기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근초고대왕은 『일본서기』에 진구왕후가 신라를 치고 임나를 평정했다는 369년에, 고구려 병사 2만의 침입에 태자를 보내 5천의 군사를 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런 백제의 근초고대왕이 『일본서기』에는 일본의 나가히코에게 신속을 맹세하는 한심한 군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 해에 과연 근초고대왕이 한가하게 한반도 최남단까지 태자와 같이 내려가 일본 군대를 만날 상황이었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근구수태자가 고구려 병을 물리친 것이 9월이었으며 대왕은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했다고 되어 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근초고대왕 부자가 일본을 상국(上國)으로 떠받들기로 두 번이나 맹세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대왕은 위 369년의 2년 후 고구려군의 침입을 물리치는 한편 여세를 몰아 태자와 함께 3만의



병력으로 고구려의 도읍 평양까지 진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위세를 떨쳤다. 또 근구수대왕은 377년에 3만의 병력으로 다시 평양을 치는 위용을 보였다. 중국과 대등하게 맞선 고구려를 치고 들어간 근초고 · 근구수대왕이 무슨 까닭으로 왜를 하늘같이 섬긴단 말인가? 김현구는 삼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서 『일본서기』만 맹신하고 『삼국사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다. 그는 일본 유학 시 박사학위 논문을 『야마토 정권의 대외관계』라고 하여 한 · 일관계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으며, 최근 본인 스스로 법정에서 『삼국사기』는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넷째, 위에서 『일본서기』에서 진구왕후 때까지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공인된 정설이다. 이것은 필자의 과장이 아니며 김현구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거나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 일본에서도 그 사료비판 능력에 따라 학자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sup>4)</sup>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일본서기』를 사료로 활용할 경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삼국사기』 등 다른 사료를 통한 교차검증은 불가결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김현구의 위의 언급은 면피용 발언임을 아래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① 한반도남부 경영문제는 결국 『기(記)』(고사기古事記를 말함; 필자) · 『기(紀)』(일본서기를 말함; 필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밖에 없음이

4)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31쪽.

확인된 셈이다.<sup>5)</sup>

② 6세기의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기본 사료로서는 한국측의 『삼국사기』와 일본측의 『일본서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가 6세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좋은 싫든 전적으로 『일본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게 다른 사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구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김현구는 친일 경도 사관만 일관될 뿐 앞뒤가 서로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위의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김현구 자신이 “좋은 싫든 전적으로 『일본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게 다른 사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구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배제하고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한반도 남부경영론) 등 6세기의 한일관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구 자신이 말한 대로 신빙성이 적은 『일본서기』는 원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임나는 물론 가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임나든 가야든 백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임나를 가야로 보더라도 임나에 관한 모든 기록은 허위로 보아야 옳다. 그러나 김현구는 이처럼 허위인 『일본서기』의 백제·임나관계를 유일한 사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구왕후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 학계의 정설이고, 김현구 자신도 이를 인정했다.

5) 김현구, 『임나일본부연구』, 1993, 7쪽.

6)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일지사, 2009, 21쪽.

그러나 오늘날 시각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진구왕후의 3한정별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는 학문적으로도 진구왕후의 3한정별은 사이 메이(齊明)천황이 663년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4백여 척의 배에 2만 7천여 명의 군대를 백촌강 싸움에 파견한 사건을 모델로 하여 가공된 이야기라는 것이 통설이다.<sup>7)</sup>

진구왕후가 후대의 사이메이여왕을 모델로 한 가공의 인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본서기』 진구 조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sup>8)</sup> 김현구 자신도 지적했듯이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들도 이미 전전부터 임나 7국 평정 등의 기사를 부정해 왔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일본인들도 부정한 임나 평정 기사를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논하고 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임나 평정시 참여한 아라타와케 · 가가와케 · 목라근자 · 사사노케 등의 장군들 중 백제장군으로 기록된 목라근자만 실제의 인물이라며 나머지 장군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라 해석하여, 임나평정이 목라근자 즉 백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료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진구 조에 기록된 허구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4명의 장군 중 1명만 실제의 역사라는 논리는 다른 사료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 목라근자와 그 후 백제의 임나 경영이라는 김현구의 억측과 조작에 대해서는 마지막 4항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7)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39쪽.

8)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2쪽.

### 3.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임나에 관한 식민사학의 모든 논의는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와 같은 나라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의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임나일본부설’이든 스에마쓰처럼 ‘남선경영론’이든 김현구의 표현대로 ‘한반도 남부경영론’이든 모두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임나와 가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앞선 연구자들의 결론을 소개하겠다.

고려대 최재석 명예교수는 『고대한일관계사연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조작에 방해가 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조작으로 몰고, 가야와 미마나(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함이 없이 말로만 가야와 미마나는 동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와 미마나가 전혀 별개의 나라라는 증거는 있을지언정 같은 나라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다.<sup>9)</sup>

‘임나 가야’라는 것은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한편 고고학자 안춘배 교수 역시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에서 ‘가야 임나’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일본측에 의해서 정리된 고고자료만으로도 임나일본부설의 성립은 어려운 사실이고,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임나일본부설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한일 양국의 고고학자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 임나일본부설이란 과거의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 속에 심정적으로

9)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143쪽.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10)</sup>

문헌사료만이 아니라 고고학 사료를 살펴봐도 ‘임나 가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군국주의자들의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임나흥망사』에서 논한 임나관 자체가 문헌사료는 물론 고고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비학문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최재석 교수나 다른 학자들의 지적에 단 한 번도 논리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으니, 이는 자신의 주장이 학문이 아니라 일방적 정치선전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김현구는 나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설을 따랐다.”<sup>11)</sup> 고 했으며,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 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스에마쓰 야스카즈였다.”<sup>12)</sup> 고도 했다. 허구로 드러난 ‘임나 가야’라는 스에마쓰를 ‘고전적 정의’를 내린 사람으로 극찬하고, 또 스에마쓰의 지명 비정에 따라 임나 강역을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까지로 이해하고 있는 김현구는 과연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나가 가야와는 판이한 나라라는 증거는 오히려 너무 많아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만 간략히 논하겠다. 첫째, 임나의 위치에 대해 『일본서기』 스진(崇神) 조에는 “북쪽으로 바다에 막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고 했다. 신라를 뜻하는 계림의 서남쪽에 있으며 북쪽이 바다로 막힌 곳은 대마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에마쓰를 비롯한 식민사학에서는 임나가 ‘북쪽으로 바다에 막혔다’는 부분은 모른 척하고, ‘계림의 서남쪽’이라는 구절만 가지고 임나를 한반도 신라의 서남쪽에 있던 가야와 동일

10) 안춘배,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 『가라문화』 제8집, 1990, 58~59쪽.

11)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43쪽.

12) 위와 같음, 16쪽.

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스에마쓰의 임나에 관한 위치 비정을 그대로 추종하여 임나가 가야라 하며, 그 영역이 경상도 일대만이 아니라 전라도 전역에 이르렀다는 설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와는 다른 실체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백제본기」·「고구려본기」에는 임나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스에마쓰나 김현구의 주장대로 임나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친 대국이었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신라본기」에는 임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야는 서기 77년부터 등장하여 532년에 신라에 병합되고, 562년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가 이사부와 사다함에게 진압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모두 15건의 기록이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신라와 임나와의 관계에 대해 529년에 와서야 처음 기록되었으며 그후 646년까지 집중적으로 15건이 보인다. 『삼국사기』의 신라·가야 관계 기사와 『일본서기』의 신라·임나 관계 기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기사가 단 하나도 없으며, 같은 해에 기록된 경우도 562년 1회를 빼고는 없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가야·신라는 『일본서기』의 임나·신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두 기록에 모두 나오는 562년의 기사를 보면, 『삼국사기』에는 가야가 모반하므로 이사부와 사다함에게 토평하게 하니 사다함이 5천의 기병으로 성을 함락시켜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신라가 긴 창과 강한 활로 임나를 공격해 백성을 살상했다고 한다. 이 두 사건이 다른 곳에서 벌어진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니, 신라에서 가야를 토평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작전임에 비해, 임나를 공격한 일은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한 비정규군 사이에서 발생한, 백성을 죽이는 노략질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임나는 가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이며, 두 기록의 신라도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나라임을 알게 된다. 즉 『일본서기』의 임나와 신

라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열도에 있던 마을 수준의 작은 나라들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백제와 가야와의 관계를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임나는 물론 가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다. 김현구의 논리대로 백제가 369년에 임나를 평정하고 2백 년 동안 경영했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임나에 관한 기록이 없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임나의 강역이 전라도 전역에 이르렀다면 백제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삼국사기』에서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까? 학문은 평범한 상식에서 출발한다. 임나는 한반도에 없었고 가야 또한 경상도 지역에만 있었기에 백제와는 충돌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백제·임나 관계 기사가 8회 보이는데, 이는 일본열도에 있던 임나와 인접한 백제를 말한 것이다.

넷째,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는 점은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명백해 진다. 가야와 임나는 각각에 속한 나라들의 숫자와 이름들이 다 다를 뿐 아니라 두 나라의 건국시기, 멸망시기, 왕들의 이름, 각각의 국세나 주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수록 가야와 임나는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더 이상 세부적인 검토는 생략하겠다. 황국사관에 병든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이나 그 설을 일부 변형한 김현구의 ‘임나○○부설’은 『삼국사기』 등 다른 사료와 비교해보면 파탄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끝으로 임나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에마쓰 자신의 임나에 대한 위치 비정을 통해 알아보겠다. 『일본서기』에는 임나에 속한 나라 이름이나 그에 속한 읍 등 20여의 지명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가라·안라·다라·탁순·사이기·줄마·고차·결찬·임례 등 10여 개 나라 이름과 침미다례·포미지·반고·상차리·하차리·사타·모루 등의 현읍 이름이 그것이다.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이런 지명들의 위치를 비정하려면 먼저 일본열도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

상적일 것이다. 만약 그 중 일부가 한반도에서 찾아질 경우 신중한 방법으로 인정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제 패전 후에도 다시 우리를 점령하려는 스에마쓰같은 일본 극우파의 안중에 그런 합리적 자세가 있을 리가 없다. 스에마쓰는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가정 아래 그 술한 지명들을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삼국사기』 『지리지』를 구석구석 이 잡듯이 뒤졌지만 단 하나도 같은 지명을 찾지 못했다. 오사카를 한반도에서 찾으니 찾아질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스에마쓰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한반도에서 찾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발음이 일부 유사한 지명을 한반도에서 찾아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지명들이라고 비정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실증주의에 의한 ‘문헌고증’이다.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탁순(卓淳)’이나 ‘탁국(喙國)’이 모두 ‘달구화’(지금의 경북 대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둘 다 대구로 할 수 없으니까, ‘탁순’은 대구로 비정하는 대신 ‘탁국’은 그 남쪽 3리에 있었다는 ‘압독군(押督郡)’(지금의 경북 경산)으로 비정했다.<sup>13)</sup> 이처럼 자기 머릿속의 공상으로 위치 비정하는 것을 역사학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발음이라고 해도 ‘탁국’과 ‘압독’이 유사성이 인정되겠는가? 그리고 탁국을 대구 남쪽 3리의 경산으로 비정하려면 『일본서기』에 탁순 남쪽 3리에 탁국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러한 기록은 없다.

‘침미다례(枕彌多禮)’에 대한 위치비정도 마찬가지다. 침미다례는 일본어로 ‘도무다례’로 읽는다면서 일본어 발음으로 위치 비정을 시도한다. 스에마쓰는 이를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주(武州)의 도무군(道武郡) 및 그 군의 속현의 하나인 동음현(冬音縣)이라면서 도무군에서 비롯된 전남 강진이 침미다례라고 주장했다

1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昭和 24年(1949), 여기서는 昭和 52년(1977), 46쪽.



다.<sup>14)</sup> 한자로 위치를 찾기가 불가능하니까 일본어 발음으로 비슷한 곳을 찾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지배하겠다는 야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발상이다. ‘침미다레’에서 뒤의 두 글자는 어디 가고 앞의 두 글자만 가지고 논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침미다레’를 찾으려면 ‘침미(沈彌)’군을 찾아야지 일본식 발음으로 ‘도무(道武)’군을 찾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침미’를 일본어로 바꾸면 ‘시즈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무시하고 침미다레를 강진이라고 우기는 것인데, 김현구는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스에마쓰를 김현구는 임나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내린 대학자로 평가하고 있으니 그 정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없던 임나를 신라와 백제보다 큰 나라라고 설정한 스에마쓰의 임나관을 ‘고전적 정의’라고 칭찬하고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설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의 스에마쓰 추종경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4. 백제에 의한 임나경영도 허위다

임나일본부에 관한 김현구의 논리의 핵심은 왜가 임나를 경영했다는 스에마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백제가 경영했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삼국사기』등을 토대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일본서기』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더구나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록에 나오는 왜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백제로 바꾸려다 보니 억측에 억측을 거듭하고 심지어 사료의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우선 1항에서 본 대로 진구왕후의 임나 평정은 가공의 기록이다. 그런데도 이

14)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47~48쪽.

기록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장군들 중 백제 장군 목라근자만 실제 인물로 추정하고 그의 임나 평정을 역사적 사실로 취급한다. 관련 기록을 보자.

아라타와케(荒田別) · 가가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 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사백개로를 보내 군사의 증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곧 목라근자(木羅斤資) · 사사노궤(沙沙奴跪)(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 · 남가라 · 탁국 · 안라 · 다라 · 탁순 · 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례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 · 벽중 · 포미지 · 반고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아라타와케 · 가가와케 등은 함께 의류촌에 모였다.<sup>15)</sup>

이 기록에서 정벌의 주체는 아라타와케 · 가가와케이며 목라근자 · 사사노궤는 지원군이다. 그러므로 백제왕 부자를 만났을 때도 아라타와케 · 가가와케 등만 언급하고 목라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 장군 목라근자가 지원군으로 참여한 것도 백제왕의 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왜왕의 명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에서 목라근자를 백제 장군이라 주석한 것은 그의 출신을 말한 것으로서 왜에 귀화한 인물이나 그의 조상의 출신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 『일본서기』 진구 49년 3월 조.

탁순에 집결하여 가야 7국을 평정하는 군대의 책임자는 신라를 치러왔다는 아  
마또정권의 아라따와께 · 카가와께가 아니라 증원군이라는 형태를 띠고 등장  
한 백제장군 목라근자였다고 생각한다.<sup>16)</sup>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려면 근거를 대야 하는데 김현구는 자신의 ‘생각’  
이 근거의 전부다. 또한 김현구는 “아라따와께 · 카가와께는 성과 씨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는 전혀 확인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sup>17)</sup> 과연 아라따와께 · 카가와  
께는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일까? 아라따와께의 경우 『일본  
서기』 오진(應神) 15년(404) 조에 모야군(毛野君) 집안의 선조라고 명기하고 있  
는 인물이다.<sup>18)</sup> 다른 사료도 아닌 『일본서기』에 나오는 인물을 마음대로 가공의  
인물로 몰 수는 없다. 가야 7국 정벌을 주도한 아라따와께가 실존인물이기 때문  
에 이를 가공의 인물로 몰고 세운 김현구의 모든 논리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었  
다.

설혹 목라근자가 백제장군이라는 김현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합리적인 설  
명이 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백제가 임나(즉 가야)를 평정했다면 후  
일 신라가 가야를 평정하고 군현으로 편입시켰듯이 백제도 군현으로 편입하고  
지방관들을 파견해 다스렸을 것이다. 백제만큼 넓다는 임나를 어렵게 평정해 놓  
고 ‘임나○○부’같은 이상한 조직을 두어 다스릴 필요가 없다. 또 목라근자에게  
임나 경영을 맡기고 또 그 아들 목만치(木滿致)와 목씨 일가에게 대대로 전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백제왕과 대등한 임나왕을 따로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인데 백제 왕실에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

16)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47쪽.

17) 위의 같음, 47쪽.

18) 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 · 巫別於百濟, 『日本書紀』, 應神 15年 8月조.

를 백제와는 다른 특수 지역으로 만들려는 김현구의 창작일 뿐이다.

목라근자의 아들이라는 목만치에 대해서 오진(應神) 25년(414) 조에 이렇게 기록했다.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이에 아들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 어려 대왜(大倭)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천황은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 [『백제기』에서는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貴國)과 왕래하였다. 천조(天朝)의 명을 받아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 소환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일본서기』는 414년에 백제 직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다고 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그 해가 4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6년의 오차가 있다. 그리고 목만치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위 기록은 한반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왜열도의 백제 · 신라와 임나에 관한 것으로 보겠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기』는 왜에 살던 백제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 백제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당연히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목만치에 대해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편 그 아들 목만치는 『삼국사기』 475년 기록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문주왕을 따라 공주로 남천하는 백제에 실재했던 인물로 확 인된다.<sup>20)</sup>

19) 『일본서기』 오진 25년 조.

20)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48~49쪽.

목만치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실재 인물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소 『삼국사기』를 사료 취급도 하지 않는 김현구는 사료 조작이 필요할 때만 『삼국사기』에 기댄다. 『삼국사기』에는 ‘목만치’는 없고 ‘목협만치(木協滿致)’라고 나온다. 그런데 위 『일본서기』 오진 25년의 기록대로라면 목라근자가 신라정벌 때(369) 신라부인에게 낳은 목만치는 475년에 105세가 넘는다. 105세가 넘는 노인이 문주왕(당시 개로왕의 태자)을 호위하여 남천하는 목협만치로 볼 수 있을까? 또 『일본서기』에는 414년에 목만치를 왜로 소환했다는 기사를 끝으로 목만치는 기사에서 사라졌다. 앞의 『일본서기』에 ‘대왜(大倭) 목만치’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목만치는 처음부터 왜인이었던 것이다. 목만치의 나이가 문제가 되자 김현구는 『삼국사기』 기록을 마음대로 추가한다.

『일본서기』에서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라고 써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목라근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369년부터 그 아들 목만치가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475년 사이에 백제가 신라와 싸운 것은 403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가 유일하다. 403년을 전후해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은 「광개토대왕비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백제기』의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신라 여자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목라근자가 목만치를 얻은 것은 403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일본서기』에 인용한 『백제기』에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신라 여인을 얻어 목만치를 낳았다고 함은, 『일본서기』 진구 49년(369)의 신라 정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403년 ‘신라 변경을 쳤다’에서 신라 변경을 친 장군이 목라근자라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왜 하필

21) 김현구, 위와 같음, 118~119쪽.

목라근자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목만치의 출생을 늦추어 그의 나이를 475년에 70세 정도의 호위대장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 변경을 쳤다’는 이 짝막한 기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전해주지 않는 사소한 사건이다. 이를 목라근자가 했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사료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백 보를 양보해서 목만치가 475년에 70여세의 백제의 호위대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가 도일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현구는 이렇게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서기』와 『백제기』가 다 같이 그가 한반도에서 활약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음을 전하고 있고, 『일본서기』가 그 아버지 목라근자를 ‘백제장’이라고 명기하면서도 그를 ‘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목만치가 도일하여 왜인이 되었음을 잘 말해준다.<sup>22)</sup>

『일본서기』와 『백제기』에는 위에서 본 대로 414년에 그를 일본으로 소환했다고 했을 뿐, 김현구의 주장대로 475년 이후 그가 일본으로 왔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김현구는 마치 『일본서기』와 『백제기』에 목만치가 475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기술하고 있다. 또 목라근자를 ‘왜인’으로 인식한 것은 그가 이미 귀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아들 목만치도 대왜(大倭)라고 표기한 것처럼 소환되기 전부터 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지 475년 도일 이후 왜인이 된 것이 아니다. 또한 김현구의 주장대로 목만치가 ‘왜인’이 되었다면 목만치에 의한 임나지배는 왜에 의한 지배이지 백제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없다. 김현구의 백제에 의한 임나지배라는 것이 허설임이 스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현구는 목만치 이후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 관련 인물들도 모두 목씨의

22) 위와 같음, 119~120쪽.

후에라면서 백제의 관리로 둔갑시키고 있다. 487년 임나에서 반란을 일으킨 키노 오히스쿠네를 목군(木君) 유비기(有非岐)라 하고,<sup>23)</sup> 529년 임나부흥회의를 주관한 오미노케나노미를 목군(木君) 윤귀(尹貴)<sup>24)</sup>, 그리고 562년 임나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키노오노마로 역시 목씨였다고 추정했다<sup>25)</sup>. 김현구는 목씨 앞에 군(君)자를 붙여 그들을 임나왕인 것처럼 인식되게 했지만 목군이란 말은 『일본서기』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유비기를 목씨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가 키노 오히스쿠네와 키노 오노마로를 목씨로 보는 근거는 이렇다.

그런데 키씨의 ‘키(紀)’( 키)는 『고사기』나 『일본서기』에는 ‘목(木)’( 키)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일본 음으로는 ‘기(紀)’나 ‘목(木)’은 같은 키( 키)음인 것이다. . . . 키씨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씨족이 맞다면 키씨의 한반도에서의 성씨는 목씨였으며 도입하기 전 한반도에서는 목씨 일족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김현구의 모든 논리는 가정의 연속이다. 키씨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씨족이 아니라면? 키씨의 한반도에서의 성씨가 목씨가 아니라면? 도입하기 전 한반도에서는 목씨 일족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가정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료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는 학문이지만 김현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김현구의 추정이 설사 맞다고 치더라도 『일본서기』는 목라근자나 목만치를 왜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그 후손들 역시 이미 왜인이자 백제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현구의 주장대로 그들이 행위 당시 백제인이었다면 임나와 관련된 후에는 왜 모두 왜로 귀화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인가? 이는

23) 위와 같음, 60쪽.

24) 위와 같음, 67쪽.

25) 위와 같음, 80쪽.

26) 위와 같음, 125쪽.

김현구의 희망사항이지 그러한 기록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기신(紀臣)에서 신(臣)자는 마음대로 없애 버리고 ‘기(紀)’자를 김현구 마음대로 ‘목(木)’자로 바꿀 수도 없다.

한편 임나 경영과 관련하여 김현구는 왜계(倭系) 백제관료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백제에서 활약한 왜계 백제관료들은 원래 한반도 출신인 일본 호족의 자제로 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백제의 지방장관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 . . 지방장관으로는 차리(영산강 동안)의 지방장관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 동방(충남 은진)의 영(領) 모노노베노 마가무노무라지, 임나 지역에서 활약하던 고세노오미·기비노오미 등이 있다. 이들은 백제 지방장관으로서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왜병들을 지휘하기도 했다.<sup>27)</sup>

김현구는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穗積臣押山) 등 4인의 지방장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을 왜계 백제관료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위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왜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왜계 백제관료라고 멋대로 국적을 바꿔버린 것이다. 훗날 주한미국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을 멋대로 한국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케이타이 6년조는 일왕 게이타이가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를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sup>28)</sup>고 전하고 있다. 왜인이란 뜻이다. 또한 그는 백제에 갔다가 차리 국수(國守)가 되어 있는데<sup>29)</sup>, 국수는 야마토왜의 관직명으로서 김현구가 이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백제의 지방장관이라고 변조시킨 것이다.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의 경우

27) 위와 같음, 192쪽.

28) 穗積臣押山使於百濟, 『日本書紀』「繼體 6年」4月조.

29) 哆唎國守穗積臣押山, 『日本書紀』「繼體 6年」12月조.



게이타이(繼體) 7년(513) 조에 ‘위(委: 왜)의 오시아마키미’라고 하여 왜인임을 밝히고 있지<sup>30)</sup> 백제에 운운하는 말은 없다. 더구나 게이타이 6년 12월에조에 호즈미노오미는 왜왕에게 임나 4현을 백제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는 그가 일왕으로부터 임나의 국수로 임명받은 신하로서 자국의 왕에게 건의했음을 알게 한다. 만약 그가 백제의 지방장관으로서 임나를 다스렸다면 이미 백제가 다스리는 4현을 백제에게 달라는 것이니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현구가 이런 사료 조작까지 하는 것은 누가 『일본서기』 원문을 대조해 보겠는가라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를 부정하고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본서기』마저도 변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학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허위 논리로 평생을 대학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호도하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를 지내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을 역임했으니 이 나라 역사학계가 지탄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물론 『일본서기』 전체가 허구는 아닐 것이다. 비록 『일본서기』의 진구왕후까지의 기록은 허구이고 그 후 오진(應神)부터도 개변·윤색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임나나 백제에 관한 그 수많은 내용을 몽땅 부정하는 것도 학구적 태도가 아닐 것이다. 필자의 좁은 견해로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세의 일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 기록들을 한반도에서의 일로 만들기 위해 『일본서기』의 기록을 변조해서 정치 선전으로 만든 것으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백제왕에 관한 기록인데, 열도의 백제에 관한 일을 한반도 백제왕의 이름으로 써서 혼동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임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본서기』의 백제 성명왕(『삼

30) 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日本書紀』「繼體 7年」6月조.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키(위(委)의 의사마키미이다). 위(委)는 왜(倭)와 통용되는 글자로서 노국왕인(奴國王印)에서도 왜(倭)를 위(委)로 썼다.

국사기』의 성왕) 때의 일을 보겠다. 김현구는 임나 문제에 있어 야마토 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 . . 임나 문제에 대해 야마토 정권은 단순히 백제를 지원하는 위치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31)</sup>고 하면서, 그 예로 541~544년 사이 임나재건 문제로 일왕이 백제의 성명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성명왕이 임나 7국 대표들을 모아 대책을 세우고 일왕의 뜻을 받든다는 기사 4가지를 언급했다. 그 기사 중의 하나에는 일왕이 성명왕을 질책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爾)는 누차 표를 올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말은 그렇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임나는 네 나라의 동량이다. 만일 동량이 부러지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짐이 생각하는 바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빨리 세우라.<sup>32)</sup>

일왕이 성왕에게 ‘너’라고 부르며 꾸짖는 『일본서기』 기사를 김현구는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일왕은 황제로서 백제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백제왕은 제후로서 천황에게 상표를 올렸다는 이런 기사를 믿는다면 백제는 명백하게 일본의 속국이며 신하의 나라라는 뜻이 된다. 더구나 그 내용이 백제왕을 ‘너’라고 하대하면서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된다. 김현구는 왜가 백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예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제가 왜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541~544년 사이는 물론 성왕 재위 32년(523~554) 동안 단 한 건의 일본 관계 기사가 없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김현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그가 언급한 4가지 기사들

31) 위와 같음, 135~136쪽.

32) 『일본서기』 「긴메이(欽明) 4년」 11월 조.

은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그의 논리대로 임나를 예전에 백제가 지배했다면 왜 일왕이 임나의 재건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백제가 신라에 빼앗긴 임나를 되찾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일본은 백제를 도우면 끝날 일이다. 『일본서기』에서 일관되게 임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이 당초부터 야마토가 차지했던 땅이라는 전제하에 재건을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애초부터 임나를 차지한 것이 백제라고 무리한 가정을 하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모순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신라가 만약 임나 10국을 멸해 가졌는데 『일본서기』는 그 가운데 7국이나 되는 많은 대표들이 임나재건을 위해 백제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3)</sup> 신라는 눈 뜨고 반역하러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인가? 도무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또 신라는 임나 지역을 지방군현으로 재편했을 텐데 어떻게 옛 명칭의 대표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경상도의 가야 밖에 차지한 일이 없는데, 김현구나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의하면 전라도 땅까지 신라가 차지한 것이 되니 언제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나? 이와 같은 술한 모순을 가진 김현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으니, 이는 백제가 임나를 지배한 일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임나는 반도에 없었으니 지배할래야 지배할 수 없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까지 임나를 백제가 지배했다는 김현구의 가설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했다. 김현구의 백제에 의한 임나지배설은 일견 식민사학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왜에 의한 임나지배를 부정하고 백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해 준 자부할 만한 성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설은 일본인들의 왜에 의한 임나지배설보다 더 식민사관에 경도된 논리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백제 성왕과 일본 천황과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백제를 왜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결국 백제의 임나지배라는 것은

33) 『日本書紀』「欽明 2年」4月조.

실제로는 왜의 임나지배는 물론 왜의 백제지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 5. 백제와 일본의 관계

김현구는 백제와 왜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표현할 때만 대등한 관계였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임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증거들을 거듭 보여준다. 그 증거들은 아래에서 논하듯이 거의 대부분 허위이거나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필자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하다. 스에마쓰만은 한국 재침략의 환상을 가졌으나 다른 일본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치적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나지배설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백제를 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총론적 논리는 견지하고 있으나, 김현구처럼 백제의 왜에 대한 저자세 왕실외교 문제 같은 것은 논하지도 않았다. 일본인들도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데 김현구는 무슨 생각으로 집요하게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임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도 김현구가 늘 강조하는 사실 중 하나는 백제 전지대왕 · 동성대왕 · 무령대왕의 왕후가 일본 왕실의 여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8년만에 귀국한 직지왕의 부인 이름이 팔수부인(八須夫人)으로 써어 있다. 고대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에 ‘팔’이라는 글자가 흔히 들어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 이름에 ‘팔’자를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직지왕의 부인은 일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일본은 661년 백제 왕자 풍의 귀국에 즈음하여 그를 일본 여인과 혼인을 맺게 한 예가 있다. 이런 면에서도 야마토정권은 직지가 귀국하기에 앞서 그를 일본 여인과 혼인을 맺게 했을 가능

성이 높다. 그렇다면 동성왕이나 무령왕의 부인도 일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도 일본에서 성장하여 혼기가 지나 귀국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백제의 왕자들을 정책적으로 혼인시켜 돌려보냈다면 그 상대는 황가의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왕자들이 혼인한 상대가 천황가의 여자들이었다면 백제왕가에도 일본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다.<sup>34)</sup>

이 길지도 않은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번이나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한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백제왕가에도 일본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라는 것이다. 김현구는 전지대왕(김현구는 『일본서기』대로 늘 직지왕이라 한다) · 동성대왕 · 무령대왕의 부인(김현구는 왕후 · 왕비라고 하지 않고 부인이라고만 한다)이 일본 여인일 것이라 추측하며, 왜 왕실에서 정책적으로 혼인시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백제 왕실의 의중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의 혼인은 전적으로 왜측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를 김현구가 백제는 왜의 속국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필자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겉으로는 백제와 왜가 대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종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위 세 대왕들의 왕후를 일본인이라고 보는 것 역시 김현구의 억측일 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전지대왕의 왕후 팔수부인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 전지왕 조에 나오는데<sup>35)</sup>, 김현구는 그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고 ‘팔’자 하나만을 근거로 일본여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국사기』 전지왕 조에 김현구의 추정이 허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다.

왕은 서제(庶弟) 여신, 그리고 해수 및 해구를 좌평으로 삼았는데 모두 왕의

34) 김현구, 앞과 같음, 187쪽.

35)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즉위년조.

친척이다.<sup>36)</sup>

전지대왕이 세 명을 좌평으로 삼았는데 왕의 동생 여신은 왕성인 (부)여씨이며, 친척의 척(戚)은 왕후의 집안을 말하므로 해수·해구에서 보듯 왕후의 성 역시 해(解)씨로 백제인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왕후가 백제 8성 중 하나인 해씨라고 밝히고 있는데, 김현구가 일부러 모른 척 했든지 이를 모르고 일본 여인으로 억측한 것이다.

또 동성대왕과 무령대왕이 왕자 시절 일본에 있었다는 것도 『일본서기』에만 있지 『삼국사기』에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전지대왕이 태자 때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나온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없는 동성대왕·무령대왕의 일본 체재 사실을 『일본서기』의 기록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일본서기』의 기록대로 두 대왕의 일본 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지 태자의 경우에서 보듯 두 대왕이 일본 여인과 혼인했을 가능성은 김현구의 표현대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역대 백제왕들 중에 일본 여인을 왕후를 두었다는 기록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에마쓰같은 식민사학자도 이런 발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김현구가 강조하는 것은 백제에서 왕자와 왕녀들을 왜에 인질로 보내 왜왕을 섬기게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왜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질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직지왕(재위 405~419)이 그 누이동생 신제도원을 일본에 보낸 뒤 백제에서는 적계여랑·지진원 등 왕녀들을 잇달아 일본에 보낸다.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건너간 왕녀의 신분이었던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가는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천황이 ‘지진원을 취하

36)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3년 조.

려 했는데 이시카와노다테와 관계를 맺었으므로 화형에 처했다'(유랴쿠천황 2년(457) 7월 조)는 내용으로도 그들의 혼인 상대가 짐작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천황가에 백제왕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37)</sup>

김현구는 백제에서 왜로부터 군원을 얻기 위해 왕자와 왕녀들을 인질로 보냈다고 하면서 그 왕녀를 일왕이 불태워 죽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대등한 나라에서 보낸 왕녀를 다른 나라에서 불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김현구가 백제를 왜의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삼국사기』에는 없고 『일본서기』에만 있는 이런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 왕녀를 보낸 것에 대해 김현구는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일본서기』 상에는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 각 왕녀들의 도일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적계여랑은 일본천황의 요청에 의해서, 신제도원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진원은 채녀(采女)로서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의 도일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백제에서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 세 왕녀를 왜에 보낸 것은 '일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같은 책에서 이것이 당시의 관행이라고도 썼다.

그런데 웅랴기 5년(461) 조에는 옛날에는 여(女)를 보냈는데 무례하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동생인 곤지 즉 남자를 보내서 천황(김현구는 반드시

37) 김현구, 앞과 같음, 186쪽.

38) 김현구, 『고대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68~169쪽.

천황이라고 쓴다)을 섬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왕이 누이동생인 신제도원을 파견한 이래 461년 곤지를 파견할 때까지는 백제의 왕녀들이 왜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제도원 · 적계여랑 · 지진원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되는 것이다.<sup>39)</sup>

거듭 말하지만 위 내용들은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일본서기』에만 나오는데 문제는 『일본서기』를 따라도 김현구가 말한 왕녀 및 관행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우선 ‘신제도원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해’ 보냈다고 한 자체가 허위이다. 『일본서기』 오진(應神) 39년 2월 조에는 “백제의 직지왕이 그 누이 신제도원을 보내 임무를 맡겼다. 신제도원은 7명의 부녀자를 거느리고 왔다(百濟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以令任. 爰新齊都媛率七婦女而來歸焉).”고 했는데, 이것이 신제도원에 대한 기록의 전부이다. 여기서 ‘영임(令任)’이란 ‘임무를 맡겼다’는 뜻인데 김현구는 이를 ‘천황을 섬기기 위해’라고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다른 판본에 영사(令仕)라고도 나오는데, 이는 벼슬을 주었다는 뜻이다. 적계여랑과 지진원의 경우도 김현구는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조작했다. 『일본서기』 유랴쿠(雄略) 5년 조는 “(백제의 가수리군은) 지진원[적계여랑이다.]이 불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飛聞池津媛 [適稽女郎也.]之所燔殺)”라고 하여 지진원이 곧 적계여랑이라고 주석했다.<sup>40)</sup> 김현구는 천황을 섬기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 같은 사람인 지진원과 적계여랑을 두 사람으로 늘린 것이다. 더구나 지진원은 왕녀도 아니다. 같은 『일본서기』 유랴쿠 5년 조는 지진원에 대해 “옛날에 여인을 채녀(采女)로써 바쳤는데 무례하여 아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채녀라고 설명하고 있다. 채녀는 궁녀다.

김현구도 앞에서 본 대로 지진원을 채녀라고 썼으므로 그녀가 왕녀가 아닌 줄

39) 위와 같음, 167~168쪽.

40) 『日本書紀』 雄略 5년 4월조.



알았을 것이고, 적계여랑과 지진원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제 왕실에서 왕녀들을 정기적으로 왜에 보내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일본서기』마저도 허위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임무를 수행하러 간 왕녀 신제도원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조작하고, 왕녀가 아닌 채녀 지진원(즉 적계여랑)을 왕녀로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그 숫자까지 늘려 조작했다. 이 어찌 학자의 소행이라 하겠는가?

김현구는 백제 왕녀들만이 아니라 남자 왕족들도 천황을 섬기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웅락기 5년(461) 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 도일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마나군·사아군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도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랑이나 마나군·사아군 등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sup>41)</sup>

김현구의 논리는 천황을 섬기기 위해 왕녀들이 파견되다가 지진원이 불타 죽은 후에는 남자 왕족들을 보내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왕녀들의 경우처럼 김현구가 대부분의 신분을 조작한 데 있다. 곤지는 백제왕의 동생이므로 왕족이지만 의다랑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부레쓰(武烈) 3년(501) 11월 조에, “백제 의다랑이 죽었다. 다카다 언덕에 장사지냈다.”<sup>42)</sup> 고만 기록했다. 왕족이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도 김현구가 그렇게 허위로 만든 것이다. 마나군도

41) 김현구, 『고대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69쪽.

42) 『日本書紀』 武烈 3년 11월조

부레쓰 6년 조에 백제의 사신이라고만 했지 왕족이란 내용은 없다.<sup>43)</sup> 게다가 다음 해 부레쓰 7년 조에는 “지난 번에 조공한 사신 마나는 백제(百濟)국주(國主)의 골족(骨族)이 아니다.”<sup>44)</sup>라고 왕족(골족)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김현구는 그를 왕족으로 둔갑시켰다. 백제에서 왕족들도 주기적으로 보내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조작하기 위해서다.

위에서 본 대로 임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 김현구가 백제와 왜 사이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사료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원하는 답은 이제 자명해 진다고 하겠다. 즉 백제는 고대 야마토 왜의 속국이였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한 마디로 임나를 지배한 백제를 야마토 왜가 지배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나를 왜가 지배했다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임나를 지배한 것은 백제인데, 그 백제를 지배한 것은 야마토 왜니, 결국 왜가 임나는 물론 백제까지 지배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직접적인 식민사학보다 더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 6. 결론

임나에 관한 김현구의 모든 주장과 논리체계는 비학문적·비논리적 방법에 입각한 허위의 체계이다. 임나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구왕후라는 가공 인물이 임나를 정벌한 일이 없었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으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임나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그 본래 모습인 일본 열도 내의 역사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찬 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일본인들에게

43) 百濟國遣麻那君·進調, 『日本書紀』 武烈 5년 10월조

44) 『日本書紀』 武烈 7년 4월조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을 평생 해오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삼국사기』를 토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했다. 『일본서기』에서도 한반도 역사의 일부나마 건져 보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위낙 윤색, 가필, 번개가 심해 그 진위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서기』의 ‘윤색, 가필, 번개’의 목적은 고대 야마토가 고대 한국을 지배하거나 그 상국이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일본서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서기』마저 많은 부분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비학자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사료조작의 원칙은 무엇인가? 한국사에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일부 기사는 모두 외우면서도 한국에 유리한 기사는 모두 부인한다. 임나가 설치되었다는 『일본서기』의 369년이나 371년, 372년의 기사는 『삼국사기』에 대비해보면 거짓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경우 김현구는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한다. 김현구는 겉으로는 백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지만 조금만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도 더 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시는 『삼국사기』·『삼국유사』같은 우리측 사료는 부정하면서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일본서기』까지도 번개, 조작하는 이런 행태가 역사학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활개쳐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백제본기」

『일본서기』

김석형, 「삼한 ·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력사과학』1호, 1963.

김인배 · 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고대사』, 고려원, 1995.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일지사, 2009.

문정창, 『고대일본사, 한국사의 연장』, 인간사, 1989.

안춘배,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 『가라문화』 제8집, 1990.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昭和 24年(1949).

[Abstract]

## **A Recognition on the Ilbonseogi and Samguksagi by Kim Hyungu**

Hwang, Soon-Jong

Hyungu Kim's position on Imna Prefectural Government during the 4th and 6th centur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Imna was the same country as Gaya which was the one of the four countries of the old Korea, namely Shilla, Baekje, Goguryo and Gaya. His position is the same as with all Japanese scholars and most of Korean scholars. Secondly, he insists that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Baekje, and with this respect he differs from the remaining all other scholars' position that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Wae(old Japan).

Hyungu Kim's position on these two points is not true. In my opinion, Imna and Gaya were different countries, namely Imna was a Japanese country and Gaya was a Korean one. So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Wae, and Gaya, by Shilla(a Korean country). That means Korean Gaya was not ruled by Japanese Wae. But at the end of 19th century all Japanese scholars of the imperial Japan began to insist that Gaya was the same country as Imna and therefore, Wae conquered and ruled Gaya. But such conclusion was not based on the rational analysis of the related material of both Korean and Japanese, but was made cheatingly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Chosun a colony.

Hyungu Kim followed the theory of Suemasse Yaskaze and regarded Imna as Gaya, but insisted that Imna was ruled by Baekje and denied the theory of Suemasse Yaskaze which insisted the Japanese ruling of Imna. These two points

of Kim's hypothesys, however, are wrong,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mna cannot be Gaya, because both countries totally differ in their years of beginning and perishing, their locations, names of kings, relations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hilla, Baekje and Goguryo.

Second, Imna was not ruled by Baekje. According to 『Ilbonseogi』 Imna was perished by 4 Japanese generals including one Baekje's general named Moknagunja. With regard to this record, Kim insisted Moknagunja's single role and denied other 3 generals as the non-existing people. But the names of the 3 people can be found in New Record on the Family Names, and so Kim's insistence cannot be accepted.

Second, Kim regarded Baekje as a sub-country of Japan. He mentioned some records of Ilbonseogi in which the king of Wae ordered the king of Baekje to recover Imna. He also emphasized a usual custom of Baekje to send the princesses and princes to Wae to serve the kings of Wae. But there was no such custom at all. He explained about 3 princesses and 3 princes for some 40 years, but no one was found in the Ilbonseogi.

**Key Words** : Imna and Gaya, Imna Prefectural Government of Japan, Management of Imna by Mok families, Yamato Wae, Diplomacy between Wae and Baekje Dynasty.